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속담을 통한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주 형

2009년 8월

제주도 속담을 통한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연구

指導教授 金 泰 琨

金 柱 亨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 年 6 月

金柱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9 年 8 月

〈國文抄錄〉

제주도 속담을 통한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연구

김주형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태곤

이 연구는 어린이들의 불량 언어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제주도 속담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선정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일련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 과정을 통하여, 제주도 방언과의 친근감을 내면화시키면서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 속담 지도를 위한 기초로서, 조선 시대부터 통용된 속담의 명칭, 개념과 함께 속담의 세 가지 구성 요소와 제주도 속담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언어 관련 속담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개념을 정의한 것과, 현행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속담 열여덟 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속담 어휘 지도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어휘 지도 내용에 이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어휘 지도 방법을 요약, 정리하였다.

언어 예절 지도 요소, 언어 예절 체험활동과 습관 형성, 바람직한 언어 예절의 지도 방안을 열거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사용의 내면화 내지 습관이 형성 되려면 실제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해야 함을 주지하였다.

자작 설문지를 통하여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사, 하귀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로서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우선,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88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속담을 분류하여 연간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를 위하여 적용한 교수·학습 활동, 이 주일의 속담 탐구, 언어 벽보판, 아름다운 낱말 찾기 게임, 우정의 편지쓰기, 삼(이, 사)행시 짓기,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 제주도 방언 표기 상가, 가정 통신문과 같은 학습 활동 적용의 실제와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어 사용이 내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상대에 알맞게 올바른 언어 사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학습 생활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적절히 제시하여 적절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궁극적으로 습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때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제주도 어린이들은 제주도 방언을 ‘재미있는 말, 올바른 말, 다정한 말, 길이 보전해야 할 말’ 따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쓰기가 어렵고,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체계적인 제주도 방언 교육 프로그램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실태이다.

친구, 인터넷이나 TV로부터 주고 받는 ‘상스런 말, 욕하는 말,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 인터넷 언어, 소리 지르기’ 따위의 불량 언어가 습관화된 어린이들에게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을 선정하여 ‘이 주일의 속담 탐구’와 ‘교수·학습 활동’을 비롯한 일곱 가지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연구 전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제주도 방언’을 낯설어 하고 접해 봤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말고는 ‘제주도 속담’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약간 아는 제주도 방언 낱말 몇 개를 재미삼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두드러질 만큼 제주도 속담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84%의 어린이가 제주도 방언 관련 학습을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불량 언어’가 난무하던 학급 생활이 ‘올바른 언어 사용’ 풍토로 바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보다 더 다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교실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제주도 방언과의 친근감과 더불어, 올바른 언어 사용이 내면화된 결과라 결론지어 진다.

※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國文抄錄>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4
3. 선행 연구	5
II. 속담 지도와 올바른 언어 사용	7
1. 속담 지도	7
2. 올바른 언어 사용	17
III.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실제	29
1.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	29
2. 프로그램 적용의 실제	39
3. 실제 적용의 결과	49
V. 결론	53
▣ 참고 문헌	56
<Abstract>	58

표 목 차

【표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속담	13
【표 2】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20
【표 3】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	22
【표 4】 언어 사용 실태	23
【표 5】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24
【표 6】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25
【표 7】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26
【표 8】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분류	30
【표 9】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연간 지도 프로그램	33
【표 10】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	36
【표 11】 제주도 속담 기록장	39
【표 12】 아름다운 낱말 예시	44
【표 13】 우정의 편지쓰기 예시	45
【표 14】 삼행시 짓기 예시	46
【표 15】 가정 통신문 예시	48
【표 16】 제주도 방언 학습 흥미도	50
【표 17】 제주도 방언 인지도	51
【표 18】 가치 태도 변화	52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 각 지방마다에는 고유의 방언이 있어서, 그 지방 문화나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방언은, 일찌기 김상헌(金尙憲)이 「남사록(1601년)」에서 “이 고장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어렵다. 사투리로 ‘숲’을 ‘곶’이라 하고, ‘산’을 ‘오름’, ‘손톱’을 ‘콧’, ‘입’을 ‘굴레’라 한다.”라고 구체적인 어휘를 들면서 지적했듯이, 제주도 방언 속에는 15세기 국어와 그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어형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서, 육지부와 다른 특이한 토속성과 국어학적 의의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른 지방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제주도 방언은 우리나라 어느 지방 방언보다도 생소함과 이질감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태어나 제주도에 자라고 있는 -주민등록상으로나, 현 거주지로나- 틀림없는 제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제주도 방언에 대해 생소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제주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주 어린이들은 표준어권(서울·경기) 어린이들 못지않게 표준어 사용이 유창하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 반면에,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서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도 흔히 겪게 된다.

더군다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시대가 강조되면서, 제주도 방언이 계속 보존·전승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새삼 염려스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제주도 방언은 표준어와 영어에 떠밀려서 알게 모르게 자연 도태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화·개방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제주도 방언은 제주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다음 세대(어린이)들에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어린이들에게 제주도 방언과 ‘체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장면’을 ‘계획적으로 제공’해 주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제주도 어린이들이 제주도 방언을 안(못) 쓰고 표준어를 능숙히 구사한다고 해서 바르고 고운 말만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린이들끼리 주고 받는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어린이들의 입에서 상말과 비속어가 오르내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조어, 단축어, 은어, 이모티콘(Emoticon) 등으로 인한 우리말 파괴 현상은 맞춤법이나 문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대간의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양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익히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¹⁾ ‘인품을 고결하게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요, 그 바른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바른 말 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요, 영혼의 얼굴이다.’²⁾라고 명시했듯이, 언어 사용이 바른 사람은 심성과 행동도 바르고, 심성과 행동이 바른 사람은 언어 사용도 바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언어 사용 습관부터 바르게 형성시켜 줘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속담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민중 속에서 구비 전승되는 동안 민중이 공감하는 정서 진리 표현 효과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속담이기 때문에 속담을 일러 “말 중의 보석이요, 말 속의 꽃이요, 말 속의 별이라 한다.”³⁾는 지적과, “속담에는 역사, 사상, 종교, 풍속, 제도, 생업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의

1) 교육부(200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생활 2-1」, 대한교과서(주).

2) 교육부(2003), 「중학교 생활 국어 2-1」, 대한교과서(주).

3) 이기문(1993), 「속담 사전」, 일조각.

역할도 한다. 현대의 언중이 속담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사용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기능과 속담은 전통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속담에 대한 교육은 국어 문화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⁴⁾라고 언급한 것처럼, 속담이야말로 이 연구 과제 해결의 가장 적합한 언어 체계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 속담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주속담은 옛 분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상의 반영은 단순히 제주 문화의 뿌리와 접맥돼 향토 자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습속과 전통 의식이 서로 엉크러진 문화 유산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⁵⁾

라고 밝혔듯이, 제주도 속담은 오랜 세월을 걸쳐 제주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입에서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온 언어 표현의 보배로서, 진솔하면서도 함축적인 몇 마디 안 되는 말 속에 제주 민중의 풍속, 사상, 신앙 및 생활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요, 촌철살인의 삶의 지혜와 교훈이 결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언어와 관련된 제주도 속담 탐구를 통하여 속담 속에 담겨 있는 언어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과 올바른 사용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체득될 수 있는 일련의 제주도 방언 교육 과정은 표준어 교육 이상으로 제주도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언어교육 활동이 될 것이라 여겨져서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린이들에게 제주도 방언에 대해 친숙하게 하면서, 평소에 버릇되다시피 한 그릇되고 상스러운 말씨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제주도 속담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선정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둘째,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셋째, 일련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 과정을 통하여, 제주도 방언에 대한 친근감을 내면화시키면서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이종철(1999),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이회문화사.

5) 고재환(1999), 「제주도속담사전」, 제주도.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방법과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범위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국어 교육’에서 ‘표준어 교육’이 아닌 ‘방언 교육’을 학교에서 ‘국어(언어) 교육’으로서 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 시간에 주로 활용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 한하여 국어와 도덕 교과와의 관련 단원을 이용하기로 한다.

둘째, 연구 대상은 효과 검증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맡고 있는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어린이로 한정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선정된 제주도 속담은 <고재환(1999), 제주도속담사전, 제주도.>에서 언어에 대해 언급한 속담 전부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교육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성향의 속담(지나친 조롱이나 비속어 사용, 인격 모독이나 신체 비방 따위)은 배제하였다.

넷째, 속담은 문어보다 구어에서 훨씬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속담 교육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읽기와 쓰기보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제주도 속담과 학습자(어린이) 간에 구어(口語) 체계가 현저히 다를 뿐더러,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제주도 방언의 사용(말하기, 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의 이해(듣기)와 심화(가치·태도)에 주력하기로 한다.

한편, 이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주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올바른 언어와 불량 언어: 이 연구에서 말하는 ‘올바른 언어’란 ‘제주 어린이가 대화할 때 쓰는 바람직한 언어’를 의미하는데, ‘불량 언어’(상말·욕설·비속어·외국어·채팅용어·은어 따위)가 아닌, ‘바른 언어·고운 언어’를 가리킨다. 이 속에는 표준어와 함께 제주도 방언도 포함된다.

제주도 방언: 제주어, 제주사투리, 제주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제주방언, 제주 방언, 제주도방언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 제주도 지방의 방언을 제주도 방언으로 정하였다.

제주도 속담: 넓게는 제주도 방언으로 표현된 속담 전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속담사전」에 수록된 속담 전부를 의미한다.

언어 관련 속담: 속담 중에서 ‘말’ 또는 ‘언어’라는 단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속담만을 추려서 ‘언어 관련 속담’이라 하였다.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넓게는 제주도 속담 중에서 언어 관련 속담 전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속담사전」에서 채택·선정한 언어 관련 속담 88개를 가리킨다.

3. 선행 연구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속담 활용 언어 사용 능력’(기능)과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태도)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김지황(1999년)은 속담과 고사성어를 추출하고 학습지도안을 구안·적용하여 어휘력, 글짓기 능력, 발표력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하였다.

이문성(2001년)은 속담 활용 지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중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고,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동기를 강화하였다.

김미한(2002년)은 구비 문학을 통하여 어휘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익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보근(2003년)은 국어 교과서와 속담 학습을 연계한 속담 표현법의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통한 접근으로, 고등학생들의 보다 풍부하며 개성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정진명(2006년)은 청소년(고등학생)들의 의사 소통 장애 요인을 분석한 후, 대화 기술 향상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 전략을 연구하였다.

박화년(2007년)은 ‘긍정적인 언어발’ 일구기, 가꾸기, 다지기 등 일련의 칭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내면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 방언’이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은 이 연구의 주요어 중에서도 핵심 주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지방 방언이든 간에, 방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를 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언어 관련 방언 속담 지도 선행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둘째, 속담 활용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습 동기와 흥미도를 높이고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며

셋째, 기본 생활 예절을 습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체험 활동 프로그램과 실천의 장을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바른 생활 태도 습관화를 내면화시킬 수 있었고

넷째, 구체적인 생활 경험 사례를 통한 일상적인 언어 사용 습관 지도는 전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을 통하여 제주도 방언을 체득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하여, 선행 연구의 공통 독립 변인 ‘속담 활용’을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활용’으로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II. 속담 지도와 올바른 언어 사용

1. 속담 지도

1) 속담의 명칭과 개념

속담의 명칭은 조선 광해군 13년(1612)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속담조선공사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영조 24년(1748) 《동문유해》와 정조 원년(1777) 《명의록언해》에 한글로 ‘속담’이라고 기재된 것을 토대로 할 때, 17-18세기 무렵부터 통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원래 속담은 저속한 것으로 알고, 고담준론을 이상으로 하는 상류의 식자층에서는 경멸해서 점잖은 자리에서는 쓰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사회의 기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민대중들에게는 통속적 보편성을 띤 공감대로서 활력이 넘치는 통속어였다.⁶⁾ 왜냐하면 짤막한 말로 민중의 삶의 실상과 교훈 및 풍자를 담고 있으므로 해서, 그 말이 점점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게 되어 퍼져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같고 다듬어지면서 더 재치 있는 말로 바뀌기도 하고 더러는 영똥한 뜻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속담으로 정착되었다.

2) 속담의 구성 요소⁷⁾

(1) 속담은 간결한 것이 요구된다.

속담이란 오랜 경험에서 짜낸 말이기 때문에 짧은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짧은 문장, 또는 짧은 말은 거의가 속담이다. 또한 세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특수형으로 된 짧은 말은 거의가 속담이다.

(2) 속담은 통속적인 것이 요구된다.

속담은 민중의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떠돌아다니는 통속적인 관용어이다. 그러므로 속담은 통속성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의미심장한 금언 명구라

6) 고재환(2001),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7) 송재선(1996), 「우리말 속담 큰 사전」, 교육출판사.

할지라도 군중들은 애용하지 않게 되므로 속담으로 존재할 수 없다.

(3) 속담은 감명력 있는 것이 요구된다.

속담은 일상 담화에서와 같이 한 번 한 말이 바로 소멸되거나,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무미 건조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어떤 특수한 의미를 지녀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속담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감명력이 있는 것이 요구된다.

3) 제주도 속담의 특성

하상수(1989)는 속담의 특성을 가리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 문학적인 말, 구체적으로 표현함, 관용어적인 성격을 띠며, 다양한 수사법 사용, 교훈을 담고 있음’⁸⁾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 속담인 경우는, 지역적으로 제주에서 사용된다는 점과 지속적인 내·외부 세력의 침탈 및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소재의 특이함과 더불어 우리 고유어의 형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어학적 측면에서 소멸된 고어의 형태가 상당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5세기 중세 국어의 원형과 그 변천 과정의 어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국어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둘째, 민속학적 측면에서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적 환경 여건에 따른 의식주와 직결된 생업 문화의 양상이 이채롭게 나타나고 있어서, 육지부의 속담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언어 관련 속담의 유형

언어 관련 속담은 나누는 잣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박갑수(1966)는 일찍이, 언어에 관한 속담의 유형을 첫째, ‘말 또는 언어’라는

8) 하상수(1989), “속담 지도에 대하여”, 경상대사범대학 국어교육과13집

날말이 드러나는 형, 둘째, 속담의 내용이 ‘언어’에 관한 것인 형, 셋째, ‘말’이나 ‘언어’에 존재하는 유의어가 들어있는 형, 넷째, 간접 화법을 쓴 표현형⁹⁾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김희아(1995)는 특히, 언어 관련 속담을 ‘언어속담’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개념을 정의¹⁰⁾하였다.

(1) 교도형 속담

무엇을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가르침으로써 인간을 가치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속담이다.

① 언어 사용을 교도하는 속담

올바른 언어 사용을 교도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 온다.
- 말은 할 탓이요, 고기는 씹을 탓이라.
- 살은 쏘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구슬 이지러진 것은 갈면 되지만 말 이지러진 것은 바로 못 잡는다.
- 바른 말 하는 사람 귀염 못 받는다.
-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② 언어 가치의 중요성을 교도하는 속담

말이란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는 속담군으로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 같이 고운 것이 없다.
-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 어린 아이 말도 귀담아 들어라.

(2) 경계형 속담

9) 박갑수(1966), “언어에 관한 속담攷”, 이하윤 선생 회갑논문집.

10) 김희아(1995), “언어속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학원, 석사학위 논문.

말이나 행위, 어떤 사실에 대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하게 하고, 타일러 주의시키는 내용의 속담들이다.

① 말조심을 경계하는 속담

말을 되도록 적게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경계하고, 언어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을 때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속담들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말이 씨 된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듣는다.
-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입찬 말은 무덤 앞에 가서 해라.
-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좁은 입으로 한 말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 실없는 말이 송사 건다.

② 사실을 경계하는 속담

말과 관련된 사실을 경계하는 속담들을 말하는데,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계집의 말은 오뉴월 서리가 싸다.
- 곱슬머리, 옥니박이하고는 말도 말렸다.
- 말이 말을 만든다.
- 말은 보태고 봉숭은 던다.
-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
-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싫어진다.

③ 행위를 경계하는 속담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신중하게 듣고 행동해야 함을 경계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있다.

- 남의 말을 다 들으면 목의 칼 벗을 날 없다.
- 말하는 것을 개방귀로 안다.
- 아이 말 듣고 배 탄다.

- 계집의 말을 잘 들으면 남을 도둑 만들고, 계집의 말을 안 들으면 집 안 망한다.

(3) 권유형 속담

언어 사용을 권유하는 속담과 상황에 맞는 처세를 할 것을 권유하는 속담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언어 사용을 권유하는 속담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권유하는 속담으로서,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죽어서 무당 빌어 말하는데 살아서 말 못할까.
-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
-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② 처세를 권유하는 속담

상황에 맞는 처세를 할 것을 권유하는 속담인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짓말도 잘하면 오려 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 들은 말 들은 데 버리고 본 말 본 데 버려라.
- 절에 가면 중인 체, 촌에 오면 속인인 체.

(4) 보도형 속담

인간사에 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알리는 내용의 속담으로,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말은 비단인데 행동은 개차반이다.
- 겹다 희단 말 없다.
- 쓰다 달단 말 없다.
- 처녀가 애 낳고도 할 말은 있다.

(5) 풍자형 속담

풍자형 속담은 서민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야유와 조롱, 저항 의지가 함께

나타나는 감정의 분출구로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곁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계수번을 다녔나 말도 잘 만든다.
- 말은 청산유수 같다.
- 말 잘하기는 소진 장의로군.
-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 삼국 시절에 났나 말은 굶게 한다.
-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다.
- 국수당에 가 말하듯.
- 여드레 삶은 호박에 도래 송곳 안 들어갈 말.

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속담

현행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계 18권 및 4학년 1학기에서 6학년 2학기까지 「말하기·듣기·쓰기」, 「읽기」계 12권, 모두 망라한 30권 속에는 다음과 같이 속담 열여덟 개가 실려 있다.

- 티끌 모아 태산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쌀은 쏟고 주워 담아도 말은 하고 못 चुप는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꿩 대신 닭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떡배기보다 장맛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병 주고 약 준다.
- 갈수록 태산
-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무소식이 희소식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표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속담

학년 - 학기	구 분	쓰 기	읽 기	내 용
1-2	단원	첫째 마당 한 걸음 더	첫째 마당 한 걸음 더	*각각 1쪽짜리 5컷, 4컷 만화를 통해 '티끌 모아 태산'과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속담 활용을 표현한 후, 속담의 의미를 풀이하여 설명함.
	제재	<쉽터> 생활과 속담	<쉽터> 생활과 속담	
	수록 속담		* 티끌 모아 태산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3-1	단원	첫째 마당 한 걸음 더	셋째 마당 한 걸음 더	*삽화와 해설을 통해 각각의 속담 속에 담긴 '말 조심'과 '고운 말 쓰기'를 깨우치고 있음.
	제재	<쉽터>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쉽터> 가는 말 오는 말	
	수록 속담	* 쌀은 쏘고 주워 담아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학년 - 학기	구 분	말하기·듣기(· 쓰기)	읽 기	학습 내용
3-2	단원	다섯째 마당 한 걸음 더	둘째 마당 한 걸음 더	* 삽화와 해설을 통해 '뽕 대신 닭'의 의미와 관용 표현 사례를 설명함 * 속담 바꾸어 표현하기 -대 끝에서 대가 나고 짜리 끝에서 짜리가 난다. 등 세 가지를 예시함
	제재	<쉽터> '뽕 대신 닭'이란	<쉽터> 속담 바꾸어 표현하기	
	수록 속담	* 뽕 대신 닭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1	단원	첫째 마당 한 걸음 더	넷째 마당 한 걸음 더	* '흥부전'의 일부를 제시하고 각 부분의 이야기 내용에 알맞은 속담을 찾아내도록 함. 예 : (1) 흥부가 박을 타
	제재	<쉽터> 내가 만든 속담 한 마디	<쉽터> 속담으로 제목 붙이기	

	수록 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뚝배기보다 장맛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병 주고 약 준다. * 갈수록 태산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p>자 금은보화가 나온 것처럼,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났을 때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 “□□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다.”</p>
6-1	단원	다섯째 마당 2. 나눔과 어울림		
	수록 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무소식이 희소식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속담이나 관용 표현의 뜻을 알고, 상황에 어울리게 표현 활동하기

실려 있는 속담 열여덟 개도 독립된 단원에서 다루지는 것은 단 한번뿐이다. 6학년 1학기 ‘「말하기·듣기·쓰기」 - 다섯째 마당 - 2. 나눔과 어울림’에서 속담이나 관용 표현의 뜻을 알고, 친교적 담화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 활동(편지 쓰기 등)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대단원의 ‘심화 학습’ 또는 ‘보충 학습’ 자료인 ‘한 걸음 더’ 중에서도, 정규 시간에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 <쉽터>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제 7차 교육과정 어느 학년 어느 학기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국어 교과서 체제 구성이 ‘대단원(□째 마당) - 2 개의 소단원 - ‘한 걸음 더’ - <쉽터>’로 이루어져 있을 감안할 때, 속담 교육은 현행 7차 국어 교육과정에서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속담 어휘 지도

(1) 어휘 지도 내용

학교에서의 어휘 지도, 혹은 어휘 지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그래

이브(Graves, 1987)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어휘 지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¹¹⁾

첫째, 낱말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낱말 학습이란 알고 있는 낱말의 독해, 알고 있는 낱말의 새로운 의미 학습, 알고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 새로운 낱말의 학습, 알고 있는 낱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이해 어휘 수준에서 표현 어휘 수준으로 발전하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낱말을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낱말을 학습하는 방법은 문맥을 활용하는 것, 낱말을 이루는 부분을 알고 활용하는 것, 사전을 이용하는 것, 문맥에서 낯선 낱말을 만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개인적으로 낱말을 많이 접하고 거기서 낱말을 학습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낱말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낱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낱말 의미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 낱말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 비유적인 언어를 인식하는 것, 낱말이 지닌 가치를 아는 것 등이 낱말에 대한 학습의 내용이다.

그레이브는 어휘 지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어휘 학습과 관련되는 태도 및 가치의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 어휘 지도 방법

지금까지 어휘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많았지만, 어휘를 언어사용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인지적인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구적 관점에서의 방법

도구적 관점에서의 방법은, 어휘는 읽기나 말하기 등의 언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보는 데서 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1)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사전적인 뜻 익히기

-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으로, 가장 쉽게 어휘 학습에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 어려운 낱말의 뜻,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을 사전에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 쉽게 어휘의 양(수)을 알 수 있고, 어느 학년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
- 실제적인 언어 사용 과정에서는 사전에서 찾은 어휘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같으나, 교사 중심의 활동이 강하다.
- 학년 수준에 따라 사전 찾기가 잘 활용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지루해 하거나 싫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 문맥을 통한 뜻 익히기

- 지도하려는 낱말이 쓰인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의 뜻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문맥과 관련하여 짧은 글을 짓게 하는 방법으로, 의미상으로 미묘한 차이가 나는 낱말을 익히는 데 유용하다.
- 실질적인 언어 사용 상황에서의 전이도가 높고, 문장을 통해 글을 많이 접하게 되어,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의 이해력과 어법 숙달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많은 양의 낱말을 가르치거나, 어휘력이 뒤지는 학생에게는 그 낱말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낱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② 인지적 관점에서의 방법

어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관점의 어휘 지도 방법으로서, 낱말의 의미를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낱말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지닌 스키마(schema ; 사전 배경 지식)를 충분히 이끌어 낼 것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미 지도 그리기를 들 수 있다.

㉠ 의미 지도 그리기

-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어휘나 사실을 열거하고 범주화하는 방법이다.
- 어휘들 간에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언어적 경험

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개념 형성이나 유추하는 데 유용하다.

- 학생들의 사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발표를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이 방법에 대한 교사의 경험이 부족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고, 낱말의 뜻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방법이다.
- 경험이 부족하고 어휘력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2. 올바른 언어 사용

1) 언어 예절 지도 요소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어 예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지도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언어 예절은 도덕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언어 예절을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예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와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하며, 상황과 상대에 알맞게 언어 예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언어의 사용에 대한 지도는 국어 교과 시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도덕 시간에는 학급 형편에 맞춰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급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언어 상황을 제재로 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어의 예절을 분명히 알게 하고, 실제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언어 예절은 궁극적으로 습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언어 예절 체험활동과 습관 형성

언어 예절의 내면화 내지 습관의 형성은 실제로 실현해 봄으로써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습관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도를 교실에서 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생활 경험의 장소는 교실이 아니라, 일상생활 장면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지도 항목을 잘 지도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였다 해도, 그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여 실제로 행동해 보지 않으면 습관은 형성되지 않는다. 또, 어린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떤 언어 예절이 내면화되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¹²⁾

첫째, 지도 항목을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한다. 예를 들면, 상황에 맞는 인사말에 대하여 아침 협의 시간에 지도하였다 해도,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수업 시간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상황에 맞는 인사말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것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지도해야 한다.

둘째, 지도 항목은 실제적인 상황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면 어린이들에게 직접 해 보게 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상황을 극화하여 시연해 보이는 지도가 바람직하다. 극화하기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거나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 사례 발표를 통하여 일상적인 언어 예절 습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상적인 어린이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언어 사용 태도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를 종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잘못된 언어 사용 실태를 제시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언어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3) 바람직한 언어 예절의 지도 방안

12) 제주도교육연구원(1993),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제주도교육연구원.

4, 5, 6학년 1학기 「국어과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2008년)」에는 ‘바람직한 언어 예절의 지도 방안’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호칭어와 지칭어의 바른 사용 지도

호칭어는 직접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며, 지칭어는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학생들이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2) 상대에 알맞은 높임말 사용 지도

우리말은 높임법이 잘 발달된 언어이다. 높임법에 맞게 말을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한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말하는 상대의 태도가 공손하고 바르면 빚까지 가려 준다는 뜻이다.

(3) 상대와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 지도

인사말에는 날마다 하는 인사말(아침, 저녁 인사말, 만나고 헤어질 때 등)과 특별한 일(축하할 때, 위로할 때)이 있어서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를 할 때는 진실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나누어야 한다.

(4) 예절바른 언어 생활 자세

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어른 등 윗사람과 말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는 어른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되,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말할 때에는 알맞은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하고 높임법에 맞게 공손한 태도와 분명한 말씨로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친구나 동생, 후배 등의 손아랫 사람과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듣는 이가 되도록 한다. 판전을 피우거나 판짓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이나 얼굴 표정, 자세 등으로 관심을 표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이의가 있더라도 즉각 말을 가로채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침착

하고 분명하게 말하여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진실하고 예의바른 말씨와 태도는 자신을 진실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한다.

②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받으면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등과 같이 말한다. 전화를 받을 때에도,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실령 잘못 걸려온 전화라 할지라도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언어 사용 실태

연구자 자작 질문지를 통해, 제주 시내 초등학교 교사 60명,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어린이 25명, 하귀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1) 교사들의 관점

①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표 2】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N = 60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우리 고장 초등학교들의 ‘바르고 고운 말’ 사용 정도	① 매우 그렇다.	2	3.3
	② 그렇다.	8	13.3
	③ 그저 그렇다.	18	30.0
	④ 그렇지 않다.	29	48.3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5.0
② 우리 고장 초등학교들의 불량 언어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우선 순위	① 친구	18	30.0
	② 인터넷	17	28.3
	③ TV	14	23.3
	④ 가정 생활	7	11.7
	⑤ 학교 생활	3	5.0
	⑥ 지역 사회	1	1.7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③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불량 언어 유형 중 우선 순위	① 상스러운 말, 욕하는 말	15	25.0
	②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	12	20.0
	③ 인터넷 언어(단축어, 은어, 기호 등)	9	15.0
	④ 소리를 크게 지름	7	11.7
	⑤ 나쁜 별명 부르기	6	10.0
	⑥ 남을 헐뜯는 말	4	6.7
	⑦ 거짓이나 나쁜 소문 퍼뜨림	3	5.0
	⑧ 존대어를 무시함	3	5.0
	⑨ 기타	1	1.7

‘우리 고장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견해’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을 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교사들은 【표 2】 ①항에서 보듯이,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실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반응 30%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응답 16.6%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53.3%로서 언어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②항에서 교사들은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불량 언어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우선 순위로 친구(30%), 인터넷(28.3%), TV(23.3%)를 지목하고 있다. 이는 위 ①항의 부정적 견해와 관련지어 볼 때,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가정에서는 인터넷이나 TV 매체를 통하여 ‘바른 말 고운 말’ 과 상반되는 불량 언어를 주거나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③항에서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불량 언어들 중에서 상스러운 말이나 욕하는 말(25%),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20%), 인터넷 언어(15%),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일(11.7%)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데,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지도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

우리 고장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정도’,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의 어려운 점’ 과 ‘제주도 속담을 활용한 언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표 3】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제주도 방언 교육의 필요성

N = 60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말	21	35.0
	② 다정다감한 말	20	33.3
	③ 올바른 말	16	26.7
	④ 바르고 고운 말	3	5.0
②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정도	① 학교에서는 표준어, 가정에서는 제주도 방언 사용이 좋다.	37	61.7
	② 될 수 있는 한 표준어를 써야 한다.	15	25.0
	③ 될 수 있는 한 사투리를 써야 한다.	6	10.0
	④ 항상 표준어를 써야 한다.	2	3.3
③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 필요성	① 가르칠 필요가 있다.	33	55.0
	②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10	16.7
	③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12	20.0
	④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5	8.3
④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의 어려운 점	①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	27	45.0
	② 지도 교사의 전문성 부족	24	40.0
	③ 시간 확보의 어려움	5	8.3
	④ 타교과(영어 등)와 비교할 때, 홀대 인식	4	6.7
⑤ 제주도 속담을 활용한 언어 교육 효과	① 매우 효과 있을 것이다.	16	26.7
	② 효과 있을 것이다.	36	60.0
	③ 그저 그럴 것이다.	6	10.0
	④ 효과 없을 것이다.	2	3.3
	⑤ 매우 효과 없을 것이다.	0	0

①항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말(21%), 다정다감한 말(20%), 올바른 말(16%) 등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나쁜 말, 촌스러운 말, 거칠고 욕하는 말이 많다, 불친절하고 버릇없는 없는 말이 많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제주도 방언이 제주의 3보(언어,

수중 자원, 식물)로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②항에서 교사들은 ‘표준어를 써야 한다.(28.3%)’는 응답에 비해 ‘될 수 있는 한 제주도 방언을 써야 한다.(10%)’거나 ‘학교에서는 표준어, 가정에서는 사투리 사용(61.7%)’으로 나타난 것 처럼, 평소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은 ‘제주도 방언’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③항의 ‘제주도 방언 교육 필요성’에 대해 71.7%가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⑤항 ‘제주도 속담을 활용한 언어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86.7%라는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의 시행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45%)나, ‘지도 교사의 전문성 부족(40%)’ 등의 응답에서 나타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이 매우 열악한 현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2) 어린이 실태

① 언어 사용 실태

【표 4】 언어 사용 실태

N = 25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평소 나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습관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1	4.0
	② 잘 하고 있다.	2	8.0
	③ 그저 그렇다	13	52.0
	④ 잘못하고 있다.	9	36.0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0	0
② 우리 학교 친구들의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습관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0	0
	② 잘 하고 있다.	2	8.0
	③ 그저 그렇다.	13	52.0
	④ 잘못하고 있다.	10	40.0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0	0
③ 나의 언어 사용 (말하기, 듣기, 쓰기) 습관에 영향을 끼치는 우선 순위	① 친구	14	56.0
	② 인터넷	5	20.0
	③ 가족	2	8.0
	④ 선생님	2	8.0
	⑤ TV	1	4.0
	⑥ 기타	1	4.0

①항과 ②항의 평소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습관과 관련하여 자신이든 우리 학교 친구든 긍정적인 응답은 극소수(10% 내외)에 불과하고, 부정적(35~40%)이거나 ‘그저 그렇다(52%)’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③항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은 대부분 친구(56%)나 인터넷(주로 채팅) 영향(20%)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표 5】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N = 25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 사용 실태	①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않는다.	14	56.0
	② 그런 대로 쓰고 있다.	8	32.0
	③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12.0
	④ 표준어보다 더 잘 쓴다.	0	0
	⑤ 부모님이 못쓰게 한다.	0	0
② 제주도 방언에 대한 긍정적 인식	① 재미있는 말이다.	9	36.0
	② 올바른 말이다.	5	20.0
	③ 다정한 말이다.	4	16.0
	④ 길이 보전해야 한다.	4	16.0
	⑤ 친절한 말이다.	3	12.0
③ 제주도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 쓰기가 어렵다.	12	48.0
	② 현대에 맞지 않는 옛날 말이다.	6	24.0
	③ 촌스러운 말이다.	3	12.0
	④ 말씨가 불친절하다.	2	8.0
	⑤ 욕하는 말이 많다.	2	8.0
④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학습 희망	① 많이 배우고 싶다.	5	20.0
	② 배우고 싶다.	12	48.0
	③ 그저 그렇다.	5	20.0
	④ 배우고 싶지 않다.	3	12.0

어린이들은 제주도 방언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미있고(36%), 아름답고(20%), 다정하고(16%), 길이 보전해야(16%)’ 한다는 응답인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쓰기가 어렵고(48%), 현대에 맞지 않는 옛날 말(24%)’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④항에 나타난 것처럼,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을 배우고 싶지만(64%), ①항처럼 ‘쓸 필요가 없어서(12%)’ 안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지만 몰라서(56%)’ 쓰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학부모들의 관점

①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표 6】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견해 N = 50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평소 우리 집 아이(자녀)의 언어 사용 습관	① 매우 바르고 고운 편이다.	5	10.0
	② 바르고 고운 편이다.	12	24.0
	③ 그저 그렇다.	21	42.0
	④ 안 좋은 편이다.	11	22.0
	⑤ 매우 안 좋은 편이다.	1	2.0
②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언어 사용 습관	① 매우 바르고 고운 편이다.	0	0
	② 바르고 고운 편이다.	7	14.0
	③ 그저 그렇다.	22	44.0
	④ 안 좋은 편이다.	19	38.0
	⑤ 매우 안 좋은 편이다.	2	4.0
③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표준어 사용 정도	① 될 수 있는 한 표준어를 써야 한다.	22	44.0
	② 학교에서는 표준어, 가정에서는 제주도 방언 사용이 좋다.	20	40.0
	③ 될 수 있는 한 사투리를 써야 한다.	5	10.0
	④ 항상 표준어를 써야 한다.	3	6.0

학부모들이 응답한 어린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견해는 교사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르고 고운 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나마

34% 비율을 보였으나, 다른 아이들에게는 14%에 불과하였다. 즉, ‘그저 그렇다’거나 ‘(매우) 안 좋은 편’이란 반응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66%,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86%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교사들의 응답 비율(83.3%)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실태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②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표 7】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N = 50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	① 다정다감한 말이다.	16	32.0
	②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말이다.	15	30.0
	③ 올바른 말이다.	7	14.0
	④ 촌스러운 말이다.	4	8.0
	⑤ 바르고 고운 말이다.	3	6.0
	⑥ 불친절하고 버릇없는 말이다.	2	4.0
	⑦ 거칠고 욕하는 말이 많다.	2	4.0
	⑧ 상냥하고 친절한 말이다.	1	2.0
	⑨ 나쁜 말이 많다.	0	0
②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주도 방언 교육 여부	①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22	44.0
	② 물어 볼 때마다 가르쳐 주고 있다.	19	38.0
	③ 표준어만 쓰도록 하고 있다.	6	12.0
	④ 가능한한 사투리를 쓰도록 하고 있다.	3	6.0
	⑤ 사투리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	0	0
③ 학교에서 제주도 방언 교육 필요성	①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7	54.0
	②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라면서 저절로 배우게 된다.	11	22.0
	③ 잘 모르겠다.	9	18.0
	④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3	6.0
④ 제주도 속담의 교육적 가치	①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	20	40.0
	② 교육적 가치가 높다.	17	34.0
	③ 그저 그렇다.	11	22.0
	④ 교육적 가치가 별로 없다.	2	4.0
	⑤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다.	0	0

학부모들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다정다감한 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말, 올바른 말, 바르고 고운 말)이 84%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촌스러운 말, 불친절하고 버릇 없는 말, 거칠고 욕하는 말이 많다.)은 16%에 불과하였다. 그만큼 제주도 방언을 가치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에 대해선 54%로서, 과반수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제주도 방언 교육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응답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도 속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34%가 ‘높다’로, 40%가 ‘매우 높다’로서 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4) 실태 조사 결과 분석

이상과 같이 교사,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고장 초등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는 ‘상스럽거나 욕하는 말,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 인터넷 언어(신조어, 단축어, 은어, 이모티콘)’ 따위로 인하여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이 잘못되고 있는데, 주로 친구나 인터넷(특히 채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바른 언어 사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불량 언어 사용을 배제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 방언에 대하여 어른(교사나 학부모)들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다정다감하고 올바른 말’이며, 어린이들은 ‘재미있고 아름답고 다정한 말로서 길이 보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절대적일 만큼, 부정적인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듯,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는 표준어 사용, 가정에서는 제주도 방언 사용’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어린이들은 제주도 방언을 ‘쓰고 싶지만, 쓰기가 어렵다거나 몰라서 쓰지 않는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렵고 몰라서 쓰지 못하는 제주도 방언’을 제주도 초등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줘야 한다고 제시된다.

셋째, 제주도 방언 교육에 대해 어린이들 64%는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 하고, 교사들은 약 72%, 학부모들은 54%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제

제주도 속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교사 87%, 학부모 7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서,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제주도 속담’ 활용 교육은 효과가 높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담당해야 할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와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제주도 방언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제주도 방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 교사’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탐라 문화제’ 행사 ‘제주어 말하기 대회’ 참가용 정도에 머물고 있는 ‘제주도 사투리 교육’이 전부인 형편을 고려할 때, 한시라도 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Ⅲ.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실제

1.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프로그램 개발

1) 연구 대상

(1) 실행 기간: 2008년 1월 1일 ~ 2009년 2월 28일

(2) 대상: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이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린이들에게 지도할 제주도 속담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어떻게 선정·분류, 체계화시키느냐’이고, 둘째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주도 속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안할 것인가’이며, 셋째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을 선정하고 분류하여 연간 지도 계획에 따라 일주일에 두 가지씩, 언어 관련 제주도속담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정립하고, 세 가지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정착을 위한 일곱 가지 학급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선정

濟州島俗談辭典¹³⁾에서 언어에 대해 언급한 속담 전부를 채택,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나친 조롱이나 비속어 사용, 인격 모독, 신체 비방처럼(예를 들면, ‘애기 나는 거 보명 씹 도렌 혼다.’) 교육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성향의 속담은 배제하였다.

정선된 제주도 속담은 모두 88개인데, 이를 다시 【표 8】 과 같이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8】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분류

언어 관련 속담 분류	갯수	언어 관련 속담 분류	갯수
(1) 풍자, 야유하는 속담	20개	(2) 사실을 일깨우는 속담	18개
(3) 허튼 말을 경계하는 속담	14개	(4) 말조심을 강조하는 속담	8개
(5) 고운말 쓰기 권장 속담	8개	(6) 대인 관계를 암시하는 속담	8개
(7) 말의 강점과 관련된 속담	6개	(8) 기 타	6개

(1) 풍자, 야유하는 속담

- 가마귀 까옥흐민 춤새도 조조조혼다.
- 가마귀 솟 타령혼다.
- 각단 밧디 생이 소리혼다.
- 글 구송 양반 즈식 것 구송 호로 즈식
-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맨 도새기 타령혼다.
- 나 꼴을 말 사둔이 몬저 곤나.
- 말 내글주 일 내글지 못 혼다.
- 말은 으구리 똥은 싸구리 머긋은 황밭갈쉐
- 말 존 집 장 고린다.
- 못 먹나 못 먹나 흐명 거죽깁지 다 먹나.
- 물ㄱ레에 아진 놈이 고치장 타령혼다.
- 서월놈 글꼭지사 물론덜 말꼭지사 몰르랴.
- 쌍얼챙이가 웨얼챙이 타령혼다.
- 입은 뜯 가죽이주.
- 지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주제에 놈의 말 혼다.
- 틀 타 먹은 하르방 허대듯 혼다.

13) 전계서

- 혼 입 가정 두 말 한다.
- 술 혼잔 먹으면 웨조케 밧 사주켄 한다.
-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
- 허벽 진이 흐이 혼난 꿩 진 이도 흐이 한다.

(2) 사실을 일깨우는 속담

- 가리오리 썸 아니 나민 입에 꺫인 말 난다.
- 가마귀도 어멍아 한다.
- 글 속에 글 싯곡 말 속에 말 싯나.
- 나 거 엇엥 높이 거 먹쟁 흐민 말이 한다.
- 놈안티 공혼 말흐민 앞질이 몹지 못한다.
- 떡 간 된 떼여 먹곡 말 간 된 더 부튼다.
- 손버릇광 입버릇은 내우기로 간다.
- 췌라 굴은 말은 안 나도 각씨라 굴은 말은 난다.
- 췌 눈이 크멍 흐여도 의눈이 크다.
- 싯는 입에 곤 입 엇나.
- 아는 질도 들으멍 가라.
- 옛사름 말 글른 디 엇나.
- 옹곡 글른 건 양펜 말을 들어 봐사 안다.
- 우는 사름 입 고우멍 부예난 사름 말 고우카.
- 혼펜 말만 들엥 송스 못한다.
- 소두(도)린 맞추민 크쟁한다.
- 자랑흐민 자랑혼 깡이 싯나.
- 준 승은 싯곡, 안 준 승은 엇나.

(3) 허튼 말을 경계하는 속담

- 갱인년 콩 볶아 먹은 소리한다.
- 곰살가운 것이 공혼 말한다.
- 곤지 말렌 단도리혼 말 더 잘 곤나.
- 굴으렝 혼 말은 안 곤곡 곤지 말렝 혼 말은 더 잘 곤나.
- 말이 아니민 대답을 말곡 질이 아니민 걸지를 말라.
- 못홀 말 흐민 지 즈손에 양얼 간다.
- 빈말은 식은 밥병덩이만도 못한다.
- 빈말은 식은 죽만도 못한다.

- 앞에 곶을 말 뒤에 곶꼭 뒤에 곶을 말 앞에 곶나.
- 어욱빳디 생이 소리 혼다.
- 옛날 콩 볶아 먹단 소리
- 입은 트라져도 말이랑 바른대로 혀라.
- 입이 담 똬다.
- 사름 입으로 못홀 말 시라.

(4) 말조심을 강조하는 속담

- 공흔 말은 입으로 내청 코로 드리싸사 혼다.
- ㄱ를 노애영 떡 곱주 말 노애영 말 곧 디 엇나.
- 애무흔 말 흐민 벳난 날에 배락 맞나.
- 낮 말은 생이가 들꼭 밤말은 쟁이가 듣나.
- 떡은 돌릴수록 죽아지고 말은 돌릴수록 커진다.
- 숨이랑 내쉬꼭 말이랑 내걸지 말라.
- 여즈 소리 정주떡 바깳디 나민 집안 망혼다
- 좁은 입으로 ㄱ른 말 너븐 치메각(치마자락)으로 못 막나.

(5) 고운 말 쓰기를 권장하는 속담

- 가는 말이 고와사 오는 말이 곱나
- 말은 예 흐영 달르꼭 아 흐영 달른다.
- 말이 고우민 비제기 사례 갓당 둠비 사온다.
- 말이 고우민 현 향 사례 갓당 궂인 향 사온다.
- 양 흐영 달르꼭 응 흐영 달른다.
- 오는 말이 고와사 가는 말이 곱나
- 홉셴 흐영 글른 디 엇나
- ㄱ를은 칠수록 곱꼭 말은 흘수록 거친다.

(6) 대인 관계를 암시하는 속담

- 씨퀘당 잘못 사귀민 앞이선 좋은 책흐당 돌아사민 험담혼다.
- 씨앗 새에 곧 말 엇나.
- 씨어명은 솟덕에 앓아도 호령혼다.
- 아방 다슴 놀레로 웨꼭 어멍 다슴 눈물로 웬다.
- 어멍 입에서 소즈 나꼭 각씨 입에서 존 서방 난다.
- 비는 놉안틴 지어사 혼다.
- 얘기야 얘기야 흐민 흥악흥악 혼다
- 얘기엿게 말도 귀담앙 들으라.

(7) 말의 강점과 관련된 속담

- 말은 곱아 맛 케긴 씹어 맛
- 말 혼 므디로 천냥 빗 가핀다.
- 입만 가지민 서월 이서방 칩도 좇앙 간다.
- 천냥 빗도 말로 가핀다.
- 헛간에 가도 흘 말은 혜사 한다.
- 거짓말도 웨삼춘보단 낫나.

(8) 기타

- 밤새낭 곧당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닌 한다.
- 밤에 꿈본 말혼민 머리 검은 개 지붕 넘나.
- 비바리가 애길 베도 흘 말이 싣나.
- 췌도 왕혼민 돌아산다.
- 아척 존다니에 췌발 겪은다.
- 콩으로 메줄 쏸텅 곱아도 고정 안 듣나.

위와 같이 선정된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자료 중에서 매주 두 가지씩 학습할 수 있도록, 【표 9】와 같이 연간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이 주일의 필수 속담’ 및 ‘이 주일의 선택 속담’ 탐구 활동을 하였다

【표 9】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연간 지도 프로그램

월	주	이 주일의 필수 속담	지도 요소
3	1	공흔 말은 입으로 내청 코로 드리싸사 한다.	말조심
	2	글 구승 양반 즈식 것 구승 호로 즈식	수신(修身)
	3	흡센 흥영 글른 되 었나.	상대방 존중
	4	말은 곱아 맛 케긴 씹어 맛.	소신 표현
4	1	ㄱ를 노애영 떡 곱주 말 노애영 말 곧 되 었나.	말조심
	2	콩으로 메줄 쏸텅 곱아도 고정 안 듣나.	신의
	3	나 거 엇영 놨이 거 먹쟁 흥민 말이 한다.	자립
	4	빈 말은 식은 밥병텅이만도 못한다.	말조심
	5	쌍얼챙이가 외얼챙이 타령한다.	분수 자각

월	주	이 주일의 필수 속담	지도 요소
5	1	가마귀도 어멍아 한다.	효행
	2	숨이랑 내쉬곡 말이랑 내걸지 말라.	말조심
	3	가리오리 셈 아니 나민 입에 콧인 말 난다.	사리분별
	4	말이 고우민 비제기 사례 갔당 둠비 사온다.	말의 품격
6	1	못홀 말 흐민 지 즈손에 앙얼 간다.	말조심
	2	양 흐영 달르곡 응 흐영 달른다.	상대방 존중
	3	비는 놉안틴 지어사 한다.	겸손
	4	쉐도 왕흐민 돌아산다.	경청
7	1	틀 타 먹은 하르방 허대듯 한다.	말조심
	2	말은 으구리 똥은 싸구리 머국은 황밭갈쉐	성실
	3	말 혼 므디로 천냥 빛 가핀다.	말의 가치성
9	1	낮 말은 생이가 듣곡 밤 말은 쟁이가 듣나.	말조심
	2	옹곡 글른 건 양펜 말을 들어 봐사 안다.	공정성
	3	갹인년 콩 볶아 먹은 소리한다.	상황에 맞는 말
	4	우는 사름 입 고우명 부예난 사름 말 고우카?	자제력
10	1	떡은 돌릴수록 죽아지고 말은 돌릴수록 커진다.	말조심
	2	소두(도)린 맞추민 크짱한다.	편견 배제
	3	애무흔 말 흐민 뱃난 날에 베락 맞나.	말조심
	4	못 먹나 못 먹나 흐명 거죽꺾지 다 먹나.	위선적인 말
	5	앞에 굴을 말 뒤에 굴곡 뒤에 굴을 말 앞에 굴나.	바르게 말하기
11	1	좁은 입으로 ㄱ른 말 너븐 치메각으로 못 막나.	말조심
	2	말 존 집 장 고린다.	진실된 말
	3	쉐 눈이 크텡 흐여도 의눈이 크다.	협의 존중
	4	곰살가운 것이 공흔 말한다.	그릇된 상대방 경계
12	1	떡 간 된 떼여 먹곡 말 간 된 더 부튼다.	말조심
	2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맨 도새기 타령한다.	분수 자각
	3	말 내걸주 일 내걸지 못 한다.	언행일치
월	이 주일의 선택 속담		비 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가마귀 까옥흐민 춤새도 조조조한다. o 술 혼잔 먹으민 웨조케 밧 사주켄 한다. 		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흐민 자랑흔 깎이 싣나. ○ 말이 고우민 현 향 사례 갖당 좇인 향 사온다. ○ 씨앗 새에 곤말 었나. ○ 거짓말도 웨삼춘보단 낫나. 	속담 하나를 자신이 선택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귀 솟 타령한다. ○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 ○ 준 승은 싣곡 안 준 승은 었나. ○ 사름 입으로 못홀 말 시랴. ○ 씨어명은 솟덕에 앓아도 호령한다. ○ 밤새낭 곤당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닌 한다. 	매 주 속담 하나를 자신이 선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단 밧디 생이 소리한다. ○ 글 속에 글 싣곡 말 속에 말 싣나. ○ 곤지 말렌 단도리흔 말 더 잘 곤나. ○ 여즈 소리 정주먹 바깳디 나민 집안 망한다. ○ 아방 다슴 놀래로 웨곡 어멍 다슴 눈물로 웬다. ○ 밤에 꿈본 말흐민 머리 검은 개 지붕 넘나.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곶을 말 사둔이 문저 곤나. ○ 놉안티 공흔 말흐민 앞질이 뭉질 못한다. ○ 곶으렝 흔 말은 안 곶곡 곤지 말렝 흔 말은 더 잘 곤나. ○ 가는 말이 고와사 오는 말이 곱나. ○ 어멍 입에서 소즈 나곡 각씨 입에서 존 서방 난다. ○ 비바리가 애길 베도 홀 말이 싣나.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궤에 아진 놉이 고치장 타령한다. ○ 손버릇광 입버릇은 내우기로 간다. ○ 말이 아니민 대답을 말곡 질이 아니민 견지를 말라. ○ 말은 예 흐영 달르곡 아 흐영 달르다. ○ 얘기야 얘기야 흐민 흥악흥악 한다. ○ 아척 존다니에 쉼발 겪은다.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월놈 글꼭지사 몰른덜 말꼭지사 몰르랴. ○ 짹는 입에 곤 입 었나. ○ 빈말은 식은 죽만도 못한다. ○ 입이 담 웬다. ○ 얘기엽게 말도 귀담양 들으랴.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은 뜯 가죽이주. ○ 아는 질도 들으멍 가라. ○ 어욱밧디 생이 소리 한다. ○ 오는 말이 고와사 가는 말이 곱나. ○ 입만 가지민 서월 이서방 칩도 좇양 간다. ○ 씨퀸당 잘못 사귀민 앞이선 좋은책흐당 돌아사민 험담한다.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주제예 놉의 말 한다. ○ 옛 사름 말 글른 디 었나. ○ 옛날 콩 볶아 먹은 소리 한다. ○ 궤들은 칠수록 곱곡 말은 홀수록 거친다. ○ 천냥 빛도 말로 가픈다.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 입 궤정 두 말 한다. ○ 흔편 말만 들엿 송스 못한다. ○ 입은 트라져도 말이랑 바른대로 흐라. ○ 헛간에 가도 홀 말은 혜사 한다. 	〃

(3)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 정립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학습 지도 일반 모형을 응용하여,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을 【표 10】 과 같이 정립하였다.

【표 10】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



4)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다양한 학급 활동

평소 학급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불량 언어를 배제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급 활동 프로그램 일곱 가지를 마련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언어와 불량 언어 요소 설정’이다.

(1) 올바른 언어와 불량 언어 요소 설정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 사용의 본질, 원리, 태도’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중 ‘언어 예절’ 및 제주도교육연구원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 (1993년)」 등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어린이들이 평소에 빈도 높게 쓰고 있는 언어 유형들을 추출, 분석하여 ‘올바른 언어 요소’와 ‘불량 언어 요소’를 설정하였다.

< 올바른 언어 요소 >

- * 상황에 따라 표준말(사투리) 쓰기
- * 상대방에 알맞은 존대말
- * 때와 장소에 알맞은 목소리로 말하기
- * 상대방에 알맞은 인사말
- *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 * 공손한 말
- * 칭찬하는 말
- * 진실된 말
- *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 * 친절한 말
- * 상냥한 말
- * 축하하는 말
- * 찬성해 주는 말
- * 웃음을 주는 말
- * 가르침을 주는 말

< 불량 언어 요소 >

- * 상스러운 말
- * 욕하는 말
- * 헐뜯는 말
- * 무시하는 말
- *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말
- * 조롱하는 말
- * 홍보는 말
- * 큰소리 지르기
- * 말꼬투리 잡기
- * 존대어를 무시함
- * 거짓 소문이나 나쁜 내용 퍼뜨림
- * 불만이나 불평하는 말
- * 통명스러운 말
- * 인터넷 언어 1 - 신조어, 단축어
- * 인터넷 언어 2 - 은어, 이모티콘

(2) 아름다운 낱말 찾기

두 번째로, 국어과 읽기 시간에 범독해야 할 상황에서 활동이 적합한 ‘아름다운 낱말 찾기 게임’을 구안하였다. 주로, 네 사람의 모둠별 활동으로 알맞는 프로그램으로서, 정해진 시간 안에 ‘아름다운 낱말’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 하는 게임이다. 낱말에 대한 의미는 물론이고, 느낌을 잘 감지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데, 숙달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찾은 낱말을 제주도 방언으로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우정의 편지쓰기

‘우정의 편지쓰기’는 한 달에 한 번, 급우들끼리 말씨와 관련하여 기분 좋은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겪었던 느낌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일련의 활동이다. 편지를 통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서운함을 호소하고, 답장을 보내게 됨으로써 ‘올바른 언어’ 확산과 ‘불량 언어’ 도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4) 삼(이, 사)행시 짓기

네 번째 프로그램은 ‘삼(이, 사)행시 짓기’이다. 주로 국어 시간 정리 단계에서 그 시간에 등장했던 ‘아름다운 낱말’ 하나를 채택하여 삼행시(경우에 따라 이행시나 사행시)를 짓는 일련의 활동이다. 4학년의 언어 구사력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삼행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나, 이행시에서부터 흥미와 적응력을 높이고, 숙달되면 사행시까지 계획하였다.

(5)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

학급 생활에서 ‘언어 사용’이 모범적인 어린이를 찾아 상을 통해 칭찬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사용 확산’을 꾀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더 나아가, 평소 기가 죽어 있거나, 상장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상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부차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6) 제주도 방언 표기 상가

제주도 방언으로 된 같은 종류의 품목들을 가상으로 진열한 가게를 열어서 모의 지폐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거나, 물물 교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도 방언 이름들을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안하였다.

(7) 가정 통신문

모든 교육은 가정(학부모)과 연계가 잘 이루어질 때 교육 효과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듯, 보다 더 제주도 방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 통신문을 주목하게 되었다.

2.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의 실제

1) 이 주일의 속담 탐구

【표 11】과 같은 내용으로 B5 규격의 「제주도 속담 기록장」을 제작하여 학급 어린이 개개인에게 나눠주었다. 어린이들은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연간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이 주일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에서 필수 속담과 선택 속담 한 가지씩을 기록하고, 익히는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연간 지도 계획의 3월 3주에 학습할 ‘이 주일의 필수 속담’은 ‘흡센 흐영 글른디 엇나.’이다. 그리고, ‘이 주일의 선택 속담’은 33~34쪽 【표 9】 3월의 속담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말이 고우민 현 향 사례 갓당 곳인 향 사온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르는 방언 ‘흡센, 글른디, 갓당, 곳인 향’의 낱말 뜻을 찾아 익히기를 하고, 수·목요일에는 속담을 풀이하여 기록하며, 금·토요일 중에는 이 속담의 내용과 관련되는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토요일에 발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 어린이들이 개인별로 익힌 속담은 2008년 3월부터 12월 까지 아홉 달(35주) 동안,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88개 중에서 ‘필수 속담’ 35개와 ‘선택 속담’ 35개를 합하여 70개씩을 익힐 수 있었다.

【표 11】 제주도속담 기록장

이 주일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 3 >월 째 < 3 >주	필수 속담	선택 속담
	흡센 흐영 글른디 엇나	말이 고우민 현 향 사례 갓당 곳인 향 사 온다.
낱말 익히기	*흡센 : *흐영 : *글른디 : *엇나 :	*고우민 : *사례 : *갓당 : *곳인 향 :
속담 풀이 (담긴 뜻)		
관련 경험 또는 나의 생각		

2) 교수·학습 활동

구안된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교수·학습 모형을 크게 세 가지 단계별로 구분, 활용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정착’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였다. 첫 단계는 ‘속담 접근하기 교수·학습 활동’이다.

교수·학습안 1 - 속담 접근하기 학습

활동 제재	만화 제작 품평회		관련 속담	○ 풍자, 야유하는 속담 ○ 말조심을 강조하는 속담 ○ 고운 말 쓰기를 권장하는 속담
시기 (장소)	6월 2주 (4학년 3반 교실)	대상	4학년 3반	
활동 목표	1. 짝공과 협동하여 ‘제주도 속담’에 관한 6컷 만화를 완성할 수 있다. 2. 품평회에 참여하여 소신껏 심사할 수 있다.			
사전 준비	○ 관련 속담의 뜻과 담긴 뜻 알아보기 ○ 참고 작품 수집하기 ○ 6컷 만화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 갖추기			
활동 단계	활동 요소	활동 내용		유의점
문제 확인 (준비)	○활동 목표 확인 ○참고 작품 탐색	- 2인 협동 6컷 만화 제작 및 품평회 - 제주도 속담과 활동 과제의 연관성 - 속담만화, 잡지, 인터넷 자료 등		○사전에 과제로 제시
문제 탐구 (발상, 구상)	○만화 제작 기준	-경제성(단순화) -기능성(홍보화) -독창성(개성화) -흥미성(재미있게) -심미성(아름답게)	○ 제작 순서 정하기 -자료 분류 -내용 구상 -6컷 배분 구성 -그림 및 글자 크기, 분량 조절하기	○컷 배분에 유의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문제 해결 (제작)	○연필 스케치 ○색칠하고 말넣기	-칸을 나누고 그림과 말풍선 스케치하기 -짝공과 협력하여 6컷 만화 완성하기		○ 4도 색상 이내에서 색칠하도록 한다.
일반화 (적용·발전)	○품평회	- 완성 작품 칠판에 게시 및 감상하기 - 짝공과 함께 ‘만화 제작 기준표’에 맞춰 심사, 채점 → 점수 집계 → 점수 순으로 금상1 은상2 동상3 장려상5 선정 → 심사위원장 발표		○자기네가 만든 작품은 제외하여 채점한다.
정리·평가	○형성 평가 ○정리 ○차시 안내	-시상 및 제작 소감, 감상 발표하기 -주변 뒷정리하기 -말 관련 제주도 속담 모듬신문 만들기		○입상 팀에게 종이 메달을 수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내용을 익히고 활용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탐구 교수·학습 활동’이다.

교수·학습안 2 -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탐구 학습

학습 문제	속담 속의 어휘를 익히고 속담 내용 탐구하기	관련 속담	말이 고우민 비제기 사례 잣당 둠비 사 온다.
학습 목표	o고운 말 쓰기를 권장하는 속담을 알 수 있다. o속담 속의 어휘와 내용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시기 (대상)	9월 3주 (4학년 3반)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유의점
문제 확인	<p>■ 준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관련된 말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께끼 놀이하기 -스무고개 놀이하기 ○ 전시 학습 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준어 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입만 가지면 서울 이서방 집도 찾아 간다. 등 *제주도 속담을 찾아(환원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입만 가지면 서울 이서방 집도 좇앙 간다. 		<p>■속담만화</p> <p>※ 표준어속담은 속담만화 혹은 인터넷 사이트 그림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한다.</p> <p>■제주도 속담 기록장</p>
문제 탐구 및 해결	<p>■ 학습 문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 말 쓰기를 권장하는 속담 알아보기 ○ 속담에 담겨있는 어휘를 익히고 속담 내용 탐구하기 <p>■ 학습 활동</p> <p><활동 1> 고운 말 쓰기를 권장하는 표준어 속담 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해 온 것을 모둠별로 검토·정리하기 ○ 속담 속의 어휘의 뜻을 알고 속담 내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어휘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제주도 속담 중에서 비슷한 속담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속담 풀이 자료집을 활용한다. 		<p>■제주도 속담 기록장</p>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유의점
문제 탐구 및 해결	<p><활동 2> 비슷한 제주도 속담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활동하기 *속담 자료집을 참고로 의논하며 속담 찾기 ○사투리 어휘의 뜻 알아내고 익히기 ○전체적인 속담 내용 탐구하기 <p><활동 3> 속담 속의 어휘와 뜻을 익히고 활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관련 속담을 인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 ○속담 속의 중심 어휘를 바꿔서 공동 의견 모아 새로운 속담 만들기 *속담의 표현의 특징이 살아나도록 문장 짓기 -‘말이 고우민 비제기 사례 갓당 둠비 사 온다.’ → 말이 고우민 현 향 사례 갓당 궂인 향 사 온다. → 말이 고우민 강생이 사례 갓당 멍생이 사 온다. → 말이 궂으민 곤밥 먹으레 갓당 보리죽도 못 먹나 ○새로 만든 속담을 가지고 올바른 언어 사용과 관련 있는 문장 짓기 → ‘말이 고우민 강생이 사례 갓당 멍생이 사 온다.’ 는 말처럼 우리는 올바른 말을 써야 한다. → ‘말이 궂이민 곤밥 먹으레 갓당 보리죽도 못 먹나’ 라는 말에서 보듯, 불량 언어를 쫓아내야 한다. 	<p>■제주도 속담 풀이 자료집</p> <p>■녹음기, 녹음자료</p> <p>※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채록한 제주도 속담을 들려준다.</p> <p>■제주도 속담 기록장</p>
일반화	<p>■ 활동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든 문장 전체에게 발표하기 *학생들이 만든 문장을 전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발표한 문장 중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 내어 음미하도록 한다. ○십자말풀이 학습지 하기 	<p>■십자말풀이 학습지</p>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성 평가 ○차시 안내 - 바르게 고쳐야 할 우리들의 언어 사용 	

세 번째 단계는 불량 언어를 도태시키고 ‘올바른 언어 사용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이다.

교수·학습안 3 -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 학습

학습 제재	고운 말 쓰기	시기(장소)	5월 4주 (교실)
학습 목표	o 불량 언어 사용 습관을 바르게 고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대 상	4학년 3반
학습 단계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유의점
문제 확인	o 경험 발표 o 학습 문제 확인	o 친구와 서로 기분 상하는 말을 주고 받았던 경험 발표하기 *왜 어째서, 어떤 말을 주고 받았나? *그런 말을 할 때의 기분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o 불량 언어 습관을 바르게 고친다. o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실천한다.	※경험 발표를 통하여 학습 목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문제 탐구	o 경험 재연 (역할극으로 재연하기)	o 무슨 일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는지 모둠 구성원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o 두 사람이 그 당시 일을 재연해 보기 *다른 친구들은 관람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불량 언어를 적는다.	※모둠(4~5명) 별로 활동한다
문제 해결	o 경험 반성 (역할극 감상 토론하기) o 평소 많이 쓰고 있는 불량 언어 o 불량 언어가 사라진다면	o 오고갔던 불량 언어 발표하기 *꼭 그런 불량 언어를 써야만 했을까?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까? *서로 불량 언어를 삼켰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o 평소 많이 하고, 듣는 불량 언어 다섯 가지씩 써 보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에 등록하기 *불량 언어를 삼간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불량 언어를 안 쓰기 위해 힘쓸 점은?	■벽보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일반화	o 올바른 언어 사용 다짐	o 올바른 언어 사용을 습관화하려면 *나의 나쁜 말버릇 알고 바로 잡기 *불량 언어 쫓아내기 *상대방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	※나의 언어 사용 습관을 반성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정리	o 형성 평가 o 차시 안내	o 올바른 언어 사용을 습관화하려면? o 제주도 방언 속의 아름다운 언어들	■ 학습지

3)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 활동

(1) 언어 벽보판

교실 뒤편 벽면에 B4 용지 세로로 두장 붙일 수 있는 규격의 게시판을 마련하여 언제나 수시로, 학교(학급) 생활에서 주고 받은 말씨 중 올바른 언어는 왼쪽 ‘널리 알리고 싶은 말’ 란에, 불량 언어는 오른쪽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 란에 쪽지를 이용하여 적어 넣도록 하였다. 실제 사용됐던 말씨와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인데,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불량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 알파벳 머리 글자(예를 들면, K.J.H.)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인격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벽보판 왼쪽보다 오른쪽에 게시되는 쪽지가 훨씬 많았으나, 2학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만큼, 불량 언어 사용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 아름다운 낱말 찾기 게임

개별 학습보다는 주로 4~5명의 모둠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낱말의 의미나 느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아름다운 낱말과는 상관없이 아무 낱말이나 적당히 들이대어서 서로 간에 가타부타 따지기도 하고, 찾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기도 하였으나, 여러 번 거듭하면서 찾는 것이 차차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자, 낱말을 찾은 후 가능한 것은 제주도 방언으로 바꿔 보도록 하는 단계도 시도해 보았으나, 어린이들이 버거워하므로 방언으로 바꾸는 활동은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표 12】 2학기 읽기 교과서에 찾은 ‘아름다운 낱말’ 예시

구분	단 원	소주제	아름다운 낱말
둘째 마당	2. 이야기 세계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40 ~ 41쪽)	이야기, (가슴) 몽클, 감동, 공감, 금덩이, 소중한, 열심히, 고향, 주막, 젊음, 감사, 강물, 혜엄, 약속, 정말, 고맙소, 귀한, 좋은, 정직, 보답 등

(3) 우정의 편지쓰기

매월 마지막 주에 우정의 편지쓰기 시간을 마련하였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말씨와 관련하여 급우들 간에 기분 좋은 일을 겪었다는 경험보다는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불량 언어와 관련한 충고나 섭섭하다는 마음 전달의 편지쓰기보다는 올바른 언어와 관련한 칭찬하거나 고맙다는 마음 전달의 편지쓰기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불량 언어가 오고가고 난 후 서로의 마음에 부담스런 앙금이 생기듯이, 나중에 마음 부담이 남을 수 있는 ‘불량 언어로 인한 편지쓰기’는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같은 값이면 ‘올바른 언어와 관련한 편지쓰기’를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표 13】 ‘우정의 편지쓰기’ 예시

올바른 언어 사용 관련	불량 언어 사용 관련
<p>지효야, 너는 평소에 잘 웃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만약 네가 웃지 않으면 우리 반 모두가 못 웃을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민경이는 지효야말로 ‘우리 반의 미소 천사’라고 이야기를 나눴단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지효가 되길 바라면서 안녕.</p> <p>9월 17일 수빈이가</p>	<p>○찬에게 네가 축구를 잘 해서 1반이나 2반과 시합할 때 골을 잘 넣어서 항상 우리 반이 이길 수 있지. 그런데, 나쁜 욕은 왜 그렇게 잘 하니? 축구는 좋은데, 나쁜 욕은 제발 하지 마, 나쁜 욕을 안 쓴다면 이번 선거때 너를 반장으로 뽑아 줄게. 그럼 안녕.</p> <p>5월 26일 현 ○ 미 솜</p>

(4) 삼(이, 사)행시 짓기

처음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활동을 벌였던 것이 바로 삼(이, 사)행시 짓기이다.

주로 국어과 읽기 시간 정리 단계에서, 그 시간에 다루어졌던 ‘아름다운 낱말’ 하나를 채택하여 적용하려고 구안한 것인데, 생각 이상으로 전이 효과가 높고 아이들의 반응과 흥미가 상당하여 다른 교과 시간에도 흔히 활용하게 되었다. 이를

테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과목 특성상 ‘올바른 언어’와는 연관성이 덜함으로 인해, 그 시간 ‘핵심 용어’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4학년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이행시는 난이도가 낮고 사행시는 높은 탓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3행시 짓기를 행하였다.

【표14】 정리 단계에 활용된 삼행시 짓기의 예시

국어(읽기)	도 덕	수 학
개 - 개울 따라 울 - 울고 가는 저 냇물은 가 - 가는 곳이 어드메노	선 - 선생님께서 물 - 물을 따라 주셨다	반 - 반장에 당선되어 울 - 올해 처음으로 림 - 임명장을 받았다.
성 - 성당에 미 - 미사 드리러 갔다가 천 - 천사처럼 아름다운 사 - 사람을 보았다.	정 - 정답을 다 - 다 맞추려면 운 - 운도 좋아야 한다	다 - 다 같이 합시다 각 - 각자 따로 하지 말고 형 - 형제처럼 다 같이

(5)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

학급 생활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 확산’과 뒤쳐진 아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회가 거듭되면서 수상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학급 생활 여러 영역과 더불어 우수아에게도 확대하게 되었는데, 그 효과는 원래 목적 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가지 보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 style="text-align: center;">곤 사름 맥 씨영도 곱나</p> <p style="text-align: center;">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채 윤 선</p> <p>어머니가 안 제신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꾀꾀하게 생활해 나가는 윤선이를 볼 때마 다, 선생님은 ‘곤 사름 맥 씨영 도 곱나’ 라는 속담을 생각한단다.</p>	<p>제이무리 여러 어려움이 ‘맥’ 으로 씩여 온다 하더라도 윤선이의 아름 다운 마음씨와 착한 행동을 가릴 수 야 있겠니?</p> <p>이 세상에서 제일 ‘곤 사름’ 윤선 이는 장차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상을 보낸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4월 8일 교사 김 주 형</p>
--	---

췌 눈이 크뎡 흐여도 의눈이 크다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임 태 건

동네 어른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태건이에게 칭찬을 보내고 있다. 인사성이 바르고, 말씨가 공손한 예의 바른 어린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에 덧붙여, 태건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고 싶어 이 상장을 쓰고 있다.

‘췌 눈이 크뎡 흐여도 의눈이 크다’는 우리 고장 속담을 증명하듯이, 태건이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친구들과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학습 일에 앞장서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2008년 11월 13일

교사 김 주 형

(6) 제주도 방언 표기 상가

5월부터 시작하여 홀수에 해당되는 달(5월, 7월, 9월, 11월. 단, 1월은 겨울 방학으로 제외) 첫째 주에 열어서 모두 네 차례를 벌였는데, 1학기에는 표준어와 동일한 가게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품목 이름들까지 표준어로 그냥 나오는 것이 대세였으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1월에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췌 푸는 집 : 곤췌, 보리췌, 흐린췌, 모인췌, 풋, 녹디, 모물췌, 강나륙,

산디, 생이콩, 득새기콩, 두불콩, 거문께, 힌께

무공해 송키 상회 : 감즈, 지실, 우방지, 느물, 사발느물, 놈뻐, 물외, 유잎, 속,

양옛간, 콕데사니, 풀마농, 꺾마농, 꿩마농, 세우리, 난시, 미내기, 제피

당일 바리 바룻꺾기 : 솔래기, 물꾸럭, 각꺾기, 코생이, 메역치, 모도리, 복쟁이,

구문쟁이, 놀부, 객주리, 줄락. 덩불치, 모살치, 가문돔, 구릿, 보들레기, 웅이, 깍다구, 존다니, 비깨, 술맹이, 손치

제주 향토음식점(국내산)

- o 전문 음식 : 삶은 독, 돛배끼기, 쇠다리, 즈배기,
- o 국 종류 : 멜국, 멍국, 보말국, 구살국, 돛배끼국, 각제끼국
- o 죽 종류 : 생복죽, 솔래끼죽, 오분재끼죽, 문계죽, 강이죽, 보말죽, 풋죽
- o 출래류 : 자리젓, 멜젓, 강이젓, 게웃젓, 구살젓, 구쟁기젓, 오분재끼젓, 마농지, 동지집치, 놉배집치, 츠마기집치, 지진 독새기

신토불이 떡집 : 곤떡, 빙떡, 설귀떡, 조침떡, 고장떡, 브름떡, 상왜떡, 오매기떡, 돌래떡, 췌기떡, 지름떡, 새미떡

민속 그릇점 : 줍팍, 솔박, 작박, 남박세기, 동그랑착, 차롱, 송키구덕, 낭퐁이, 고령착, 푸는체, 브름바구리, 낭도고리, 열맹이, 곰박, 돛배, 즈뽀

(7) 가정 통신문

가정, 학부모와 연계한 제주도방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임 명의의 가정 통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방언을 섞어서 문장을 구성하였는데, 학부모들의 반응과 관심이 예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들에게서는 충분할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15】 가정 통신문 예시

4의3 가정 통신 제 6호	4의3 가정 통신 제 10호
<p>안녕하십니까? 군녕이 바당 깻긱디션 줌너덜 숨비 소리가 좇아지곡, 질왓드르에선 인도 꼬장 내가 은은한 초으름의 문똥입니다. 그를 말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우리 학교 가족 오름 등반’ 관련입니다. 우리 학급 가족들이 ‘하영덜 참여’ 하셔서 ‘푸지근하고 듨삭흔 정’ 나눠 보게 마썸.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 아래의 참가 희망 신청서를 기재하시고 6월 3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p>	<p>안녕하십니까? 그추록 목실던 더위도 훈풀 기십 죽언 아칙과 저녁으로는 제법 서느릉 해지는 일른 그슬인게 마썸. 오늘 그를 말은 ‘4학년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안내입니다. 우리 4학년 설른애기덜이 학교에서 어떻 살아감인지 궁금흔지 앓으짱? ‘글 구승 양반 즈식, 꺄 구승 상놈 즈식’이란 속담이 있듯, 우리 아이가 ‘글 구승’을 하는지, ‘꺄 구승’을 하는지 공개수업 날 왕 보썸서.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이하 생략 -</p>

3. 실제 적용의 결과

1) 올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관찰 평가

제주도 방언,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과 관련한 일련의 학습 활동이 학급 어린이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요약, 정리해 보았다.

구 분	제주도 방언 관련	언어 사용 관련
적용 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제주도 방언을 ‘재미있는 말, 올바른 말’과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쓰기가 어렵고 몰라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 ○ 제주도 속담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는 탓으로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나 주변 친구들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이 잘못되고 있는데, 친구나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 ○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불량언어로는 ‘상스런 말, 욕하는 말,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 인터넷 언어, 소리 지르기’ 등이 흔하다.
적용 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언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주일의 속담 탐구, 교수·학습, 올바른 언어 습관 내면화(언어 벽보판, 아름다운 낱말 찾기 게임, 우정의 편지쓰기, 삼행시 짓기,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 제주도 방언 표기 상가, 가정 통신문) 활동을 전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로 느껴질 만큼, 학급 생활 중에서 불량언어 사용 빈도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 대화를 나눌 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는 학급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적용 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방언을 구사하지는 못하나, 아는 낱말(주로 명사)을 재미 삼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사례가 많아 졌다. ○ 두드러지게 속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나, 접해 봤던 제주도 속담(주로 언어 관련) 말고는 여전히 제주도 속담을 어려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생활 중에서 특별한 경우(다툼 때, 화가 났을 때 등)가 아니면 불량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지 드물다. ○ 올바른 언어 사용은 물론이고, 보다 더 다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2) 적용 결과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후,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방언 학습 흥미도’와 ‘제주도 방언 인지도’ 및 ‘가치 태도 변화’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적용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방언 학습 흥미도

제주도 방언 학습 흥미도는 ‘제주도 방언 학습 활동’과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을 【표16】 과 같이 알아보았다.

【표16】 제주도 방언 학습 흥미도 N = 25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제주도 방언 학습 활동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재미있다.	9	36.0
	② 재미있다.	12	48.0
	③ 그저 그렇다.	4	16.0
	④ 재미 없다.	0	0
②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재미있다.	8	32.0
	② 재미 있다.	12	48.0
	③ 그저 그렇다.	4	16.0
	④ 재미 없다.	1	4.0

‘재미있다거나, 매우 재미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①항 제주도방언 학습 활동에 84%, ②항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에 80%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거나, 재미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20% 이하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 방언을 익히기 위한 일련의 교육 활동과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연간 지도 프로그램 운영은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2) 제주도 방언 인지도

【표17】 제주도 방언 인지도

N = 25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까?	①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않는다.	8	32.0
	② 그런대로 쓰고 있다.	10	40.0
	③ 되도록 쓰려고 노력한다.	5	20.0
	④ 쓸 필요가 없다.	2	8.0
② 학교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배우고 싶습니까?	① 많이 배우고 싶다.	9	36.0
	② 배우고 싶다.	12	48.0
	③ 그저 그렇다.	4	16.0
	④ 배우고 싶지 않다.	0	0

연구를 적용하기 전 설문 조사에서 ①항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관하여 ‘①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56%(14명)이었으나 적용 후에는 32%로 6명 줄어들었고, ‘② 그런대로 쓰고 있다.’는 어린이는 32%(8명)에서 40%로, 두 명이 더 늘었음을 알 수 있다.

②항 ‘학교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배우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적용 전 ‘① 많이 배우고 싶다’가 20%(5명)에서 36%로 4명 늘고, ‘② 배우고 싶다’는 48%(12명), 적용 전후 변함이 없었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거나, 배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2%(8명)에서 16%,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배우고 싶지 않다’는 어린이가 원래 12%(3명)이었으나, 적용 후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반응은 이 연구가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제주도 방언과 가까이하고 익숙해지면서 괄목할 만큼 제주도 방언 체득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치 태도 변화

가치 태도 변화는 ‘일년 동안 달라진 언어 사용 실태’와 ‘올바른 언어 사용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표18】 가치 태도 변화

N = 25

설문 항목	응답 항목	N	%
① 4학년 동안 나의 언어 사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① 많이 좋아졌다.	8	32.0
	② 좋아졌다.	10	40.0
	③ 그저 그렇다.	6	24.0
	④ 더 나빠졌다.	1	4.0
② 올바른 언어 사용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제주도 속담 상장	8	32.0
	② 언어 벽보판	6	24.0
	③ 우정의 편지쓰기	6	24.0
	④ 아름다운 낱말 찾기	2	8.0

①항 ‘언어 사용 변화’는 72%의 어린이가 많이 좋아지거나 좋아졌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서,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1명)고 응답한 남자 어린이는 학교(급) 생활 부적응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 연구와는 별도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응력과 사기를 높여 줘야 하겠다.

②항은 ‘올바른 언어 사용 정착 내면화 활동’ 일곱 가지(언어 벽보판, 아름다운 낱말 찾기, 우정의 편지 쓰기, 삼(이, 사)행시 짓기,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 제주도 방언 표기 상가, 가정 통신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쓰라고 했는데, 일곱 가지 영역이 모두 나타났고, 그 우선 순위별로 네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 속담 표제 상장(32%)과 언어 벽보판(24%) 및 우정의 편지 쓰기(24%)가 각각 첫째, 둘째 순위에 오른 것은 전자는 상찬 효과로서, 후자는 징벌 효과로서 작용한 결과라 해석된다.

IV. 결론

제주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주 어린이들은 표준어권 어린이들 못지않게 표준어 사용이 유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반면, 제주도 방언에 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표준어를 능숙히 구사한다고 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입에서 상말과 비속어가 오르내리는 것은 보통이고, 신조어, 단축어, 은어, 이모티콘(Emoticon) 따위로 인한 우리말 파괴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어 교육 열풍’과 ‘국제자유도시’ 시대가 강조되면서, 제주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인 제주도 방언이 계속 보존·전승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새삼 염려스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주도 속담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속담을 선정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일련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학습 활동 과정을 통하여, 제주도 방언과의 친근감을 내면화시키면서 올바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귀초등학교 4학년 3반 어린이 25 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어느 지방 방언을 막론하고 ‘방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를 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표준어 교육’이 아닌 ‘방언 교육’을 학교에서 ‘국어(언어) 교육’으로서 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 시간에 주로 활용하였고, 국어와 도덕, 사회 교과와 관련 단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속담은 문어보다 구어에서 훨씬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속담 교육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읽기와 쓰기보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가 크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방언·제주도 속담’과 ‘학습자(어린이)’ 간에 구어(口語) 체계가 현저히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 방언의 사용(말하기, 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의 이해(듣기)와 가치·태도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어린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어 사용이 내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량 언어 사용을 하자 말아야 한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와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하며, 상황과 상대에 알맞게 올바른 언어 사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학급 생활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적절히 제시하여 적정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궁극적으로 습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때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둘째, 제주도 어린이들은 제주도 방언을 ‘재미있는 말, 올바른 말, 다정한 말, 길이 보전해야 할 말’ 따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쓰기가 어렵고,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체계적인 제주도 방언 교육 프로그램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실태이다.

셋째, 친구, 인터넷이나 TV로부터 주고 받는 ‘상스런 말, 욕하는 말,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 인터넷 언어, 소리 지르기’ 따위의 불량 언어가 습관화된 어린이들에게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을 선정하여 ‘이 주일의 속담 탐구’와 ‘교수·학습 활동’을 비롯한 일곱 가지 ‘올바른 언어 사용 내면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이에, 제주도 방언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면서 친근감을 갖게 되는 한편, 속담에 담긴 언어 사용의 바른 가치관과 교훈을 내면화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습관이 형성되어 학급 생활에서 불량 언어 사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넷째, 이 연구의 적용 결과,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 사용’과 관련하여 어린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40%가 ‘그런대로 쓰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되도록 쓰려고 노력한다’는 어린이도 20%가 된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보면 60%의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사(名詞) 위주의 약간 아는 제주도 방언 몇몇 개를 재미삼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어린이들의 대화

실패를 면밀히 살펴볼 때, 한 해동안 연구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어린이들이 제주도 방언을 구사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쓰고 싶지만 몰라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32%를 훨씬 넘어서 80%도 더 될 것이라 체감된다. 따라서, 제주도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인 제주도 방언을 어린이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싶다.

끝으로, 어린이들은 연구 전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제주도 방언’을 낯설어 하고 접해 봤던 ‘언어 관련 제주도 속담’ 말고는 ‘제주도 속담’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약간 아는 제주도 방언 낱말 몇 개를 재미삼아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두드러질 만큼 제주도 속담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84%의 어린이가 제주도 방언 관련 학습을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불량 언어’가 난무하던 학급 생활이 ‘올바른 언어 사용’ 풍토로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보다 더 다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는 교실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 속담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제주도 방언과의 친근감과 더불어, 올바른 언어 사용이 내면화된 결과라 결론지어 진다.

□ 참고 문헌 □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제주문화사.
- 강영봉(1997), 「제주의 언어 2」, 제주문화사.
- 고재환(1999), 「제주도속담사전」, 제주도.
- 고재환(2001),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 교육부(1998),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요(교육과정 자료 5)」, 국정교과서(주)
- 교육인적자원부(200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대한교과서(주).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도환(1993), 「한국속담활용사전」, 한울아카데미.
- 김미한(2002), “구비문학의 활용을 통한 언어 사용 능력 신장 방안”, 현장교육 연구, 한국교총.
- 김지황 (1999), “속담과 고사성어 활용을 통한 어휘 구사력 신장”, 현장교육연구, 한국교총.
- 김태곤 외(1985) 「은어, 비속어, 직업어」, 집문당.
- 김태곤 외(1998), 「한국어의 역사」, 대한교과서(주).
- 김희아(1995), “언어 속담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갑수(1966), “언어에 관한 俗談攷”, 이하윤 선생 회갑 논문집.
- 박화년(2007), “칭찬 훈련을 통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 기르기”, 현장교육연구, 한국교총.
-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재선(1996), 「우리말 속담 큰 사전」, 교육출판사.
- 윤보근(2003), “국어 교과서와 속담의 연계 학습 지도를 통한 국어 사용 능력 신장 방안”, 현장교육연구, 한국교총.
- 이기문(1993), 「속담 사전」, 일조각.
- 이문성(2001), “속담 활용 지도 프로그램의 구안·적용을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 현장교육연구, 한국교총.
-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종철(1999),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이회문화사.
- 장덕순(1989)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정동화 외(1989),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 정진명(2006), “대화 기술 향상 훈련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전략”, 현장교육연구, 한국교총.
- 최규일(1995),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새국어생활 5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 최규일(2005),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할 언어유산”, 「국회도서관보 2005-8월호」, 국회도서관.
- 하상수(1989), “속담 지도에 대하여”, 경상대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집.

Abstract

A Study on Proper Language Instruction through Jeju Provincial Proverbs

Ju-hyoung Kim, major in Korean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Taeg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among Jeju provincial proverbs and to design programs promoting proper language use which internalize affection to Jeju provincial dialect and encourage proper language use through a series of study activities of Jeju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Chapter II looks into three components of proverbs including terms and concepts which have been used in common since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characteristics of Jeju provincial proverbs as basic material for proverb instruction. This chapter also classifies and defines proverbs into five types and presents 18 proverbs included in textbooks of the current 7th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of education. Besides, this chapter sums up and presents three teaching methods in regard to teaching vocabulary which schools must deal with.

This chapter enumerates elements of language etiquette instruction, language etiquette experience activities and methods of teaching proper language etiquette and notes that internalizing or habituating proper language use requires continued and repeated teaching.

This study survey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4th grade school children of Hagwui Elementary School and their parents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

drawn up by this writer,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local children's language' as well as 'opinions about children's language', 'recognition to Jeju dialect' and 'the necessity of Jeju dialect instruction' and analyzed the results.

Chapter III selected 88 proverb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for proper language use", designed annual teaching programs by classifying them and set up models of teaching and studying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And this chapter summed up actual activities applied to class such as teaching and study activities to internalize proper language use, this week's proverb study, language bulletin board, game of choosing beautiful words, writing pen pal letters, composing four-line verse, letters of commendation with a title derived from Jeju provincial proverbs, signboards or home correspondence using Jeju dialect, and th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In regard to internalizing proper language use on the part of children, school teachers should teach children to use proper language in accordance with detailed situations and places in and out of school. Since proper language use is ultimately aimed at habituation, teachers should make children practice it in daily life.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families is considered to turn out more effective.

Children in Jeju Province regard Jeju dialect as 'fun language', 'proper language', 'affectionate language', 'language worthy of preserving forever', etc. in a positive manner. But it is a fact that Jeju dialect is too difficult to use, so many of them cannot use it even though they want to use it. It is also a fact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difficulty in teaching it for lack of 'Jeju dialect education programs' and for lack of 'specialized knowledge'.

For children who are in the habit of using bad language such as vulgar words acquired from friends, internet and TV, swear words, scorns, internet

language, screaming, etc., this study selected 'Jeu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and developed and applied seven 'programs of internalizing proper language' including 'this week's proverb study' and 'teaching and study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 children were not so different before and after research. They were still unfamiliar to 'Jeu dialect' and they were not well aware of and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Jeu proverbs but for Jeu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as before. But it was found that cases that children intentionally use some words among Jeu dialect for fun increase with time and their resulting interest in it also increases remarkably. And 84% of children wish to be taught Jeu dialect at school, which means that school life turns from environment rampant of vulgar language to environment using proper language through a series of language instruction programs.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sult comes from children's familiarity to Jeu dialect and internalization of proper language use through 'Jeu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given that children try to make class environment using language considerate of others.

